

세무회계저널
제10권 제3호 2009년 9월 pp.139~180
한국세무학회

IFRS 교육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

나대영** · 박성배*** · 이운상****

<요 약>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교육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집단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현재 회계교육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조사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회계학 전공학생, 회계학 교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상장기업 회계부서 실무자 등 4개 관련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120부씩 총 480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첫째, IFRS에 대한 교육기관별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대학교가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으로 나타났으며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회계학 학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IFRS교육은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이 아닌 학부에서 학습되어야 하며 IFRS가 사설기관 및 회사내 보수교육정도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대학교에서는 IFRS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모든 집단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교수의 학습준비도에 관하여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IFRS에 대한 교육이 대학교가 아닌 전문가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어떠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나, 공인회계사회 단독으로 IFRS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IFRS에 대한 전문가의 충분한 존재여부에 대한 결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IFRS에 대하여는 교수 및 공인회계사도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이들이 IFRS교육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IFRS, 회계학교육, 교육기관별 선호도,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 본 연구는 2009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 경원대학교 회계학석사, radyoung@hanmail.net, 011-9956-5440, 주저자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sbpark@kyungwon.ac.kr, 031-750-5217,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회계학박사, nanyarr@empal.com,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09년 4월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I. 서 론

회계는 하나의 언어이다. 회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경제문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홍정화, 2001). 우리나라에 2011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이하 IFRS)은 각국의 회계기준, 즉 회계언어를 일단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미이다. 이미 유럽연합과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IFRS를 도입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IFRS도입에 따른 효익과 손실, 그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각종 보도자료 및 선행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IFRS 전면도입까지는 공식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 남아 있으나, 최근 범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외자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IFRS 조기적용을 더욱 부채질 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방안은 정책조정으로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은 회계교육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IFRS 교육의 특성을 집중분석하여, 이에 근거한 회계학 교육제도의 체질개선과 함께 전문회계인력의 양성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IFRS와 관련하여 회원인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Accreditation)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¹⁾. 이는 전문가집단 내에서도 IFRS 도입을 계기로 하여, 회계정보에 대한 품질향상과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기업 및 회계실무자 입장에서는 IFRS관련 실무경험 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IFRS 구축비용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주최한 IFRS 도입관련 심포지엄²⁾에서 국내기업인 KT의 경우, IFRS구축 총 비용이 대략 4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발표된 바 있다.

기업과 사회가 느끼는 답답함 외에, 학계 또한 IFRS와 관련하여 회계학전공 학생 및 실무자 보수교육에 대하여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IFRS 실체의 불명확성, 국내 실정에 적합한 IFRS 실무적용사례의 부족, 그리고 오랜 기간 회계교육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입시위주로 귀결된 점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IFRS 보수교육 및 제도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선 IFRS 교육에 대한 각 이해집단간의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진행은 IFRS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회계학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IFRS 교육 준비상황과 교육주체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지도 현황을 분석하여 인지도 현황에 기반한 IFRS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IFRS 교육과 관련하여 회계학 전공학생·회계학 교수·공인회계사(세무사 포함)·회계분야 실무자 등 4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답변 결과를 통해 각 집단의 인식의 차이와 그 내용을 분석한다. 설문조사는 ① IFRS교육 준비현황에 대한 6개 문항과 ② IFRS교육 주체에 대한 6개 문항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12문항을 통해 IFRS 교육 준비현황과 교육의 주체

1)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회(2008년 4월) 자료 참조

2) 금융감독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및 감독방향에 대한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8. 8. 25) 참조

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지도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실천가능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1장의 서론을 시작으로, 제2장에서는 IFRS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의 대상 및 구성,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포함하는 설문조사의 설계과정을 기술하며, 제4장에서는 각 설문 문항별 검증 및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종합결론과 한계점 및 후행연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과정과 회계교육

IFRS에 대한 개념 및 국가별 도입현황, 그리고 IFRS와 현행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 이라 함)간의 주요 차이점 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IFRS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 및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변화, 회계관련 유관기관의 준비상황, 회계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FRS 도입의 기대효과는 기업의 국제적인 대외 신인도 제고³⁾를 통한 기업가치의 상승에 있다.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도입 및 허용되는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정착되는 추세이며, 독자적 회계기준을 유지할 경우 대외신뢰도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IFRS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다.

IFRS 특징은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이며, 이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석의 범위를 넓게 두고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력한다⁴⁾는 의미이다. 또한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을 신뢰성보다 중시함에 따라 공정가치(Fair Value)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변화⁵⁾

IFRS의 적용과 연착륙을 위해 각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 및 대응방안은 기업마인

3) 정부는 기업회계의 선진화를 위해 회계감독 강화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 미사용국’으로 분류되어 국제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

4)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규칙의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더욱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계기준 당국은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5) 성도회계법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대응방안」, 2007. 12

드의 전환과 IFRS에 대한 적응일 것이다. 대략적으로 회계 및 재무보고, 시스템과 프로세스, 조직구조 등 세 항목에서의 조직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 및 재무보고 항목에서는 새로운 회계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 공시사항의 질적·양적 증대가 IFRS 도입에 따른 주요영향이 될 것이며, 이에 회계정책의 선택에 따른 사전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룹결산 정책의 표준화 및 회계매뉴얼 작성절차도 기업의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시스템과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결산시스템·관리회계시스템·연결시스템 등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재무보고와 관련된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방안의 마련 등이 주요영향이 될 것이다.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계정과목분류표 등의 체계를 정립하고, 그룹/개별사간 통합된 연결 패키지/시스템 등을 도입하여야 하며, 다양한 관리회계목적(현금흐름 예측 등)의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조직구조 상으로는 IFRS 전담인력의 양성 및 충원이 필요하며, IFRS 관련조직의 신규/추가 및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이며,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가의 활용과 재무인력 통합관리가 기업의 대응방안일 것이다. IFRS 도입의 준비는 회사 전체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목적 적합성·정확성·신뢰성·적시성의 특성에 맞게 재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준비 및 분석단계, 시스템설계 및 구축단계, 그리고 적용 및 안정화단계의 3단계로 IFRS 도입을 구상할 수 있다. 준비 및 분석단계에서는 IFRS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 준비단계와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 GAAP과의 차이 파악과 그로 인한 영향분석단계 및 산출물의 작성과 IT와의 연계/구축방안 등이 있다. 시스템설계 및 구축단계에서는 IFRS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IT시스템과 기존 IT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설계하고, 필요시 새로운 시스템을 연결하고 예비적 시험을 통하여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단계이다. 현재 은행기관과 같은 금융업의 IFRS 도입이 현 단계에서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적용 및 안정화 단계에서는 구축된 제반시스템을 바탕으로 IFRS 공시 재무제표를 산출하고 발생한 이슈를 해결하여 IFRS 재무보고체계를 안정화하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나. 회계관련 유관기관의 준비상황

국제회계기준로드맵 마련을 위해 발족된 ‘국제회계기준도입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⁶⁾이 주축이 되어 IFRS와 관련한 기준서 및 자료가 검토 및 제정되었으며, 주로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기관을 통하여 공인회계사, 기업체, 회계관련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자료가 배포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⁷⁾을 발표하였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와 영향 분석(2007년 5월 11일 공표)」⁸⁾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IFRS개요·로드맵·해외도입사례(2008.5)」등의 보도자료를 비롯하여, 「국제회

6)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IFRS 개요·로드맵·해외도입사례」 참조, 2008. 5.

7)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07. 11. 23 제정

8) 한국회계기준원,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와 영향 분석」 2007. 5. 11

계기준 도입과 회계감독 운영방향(2008.7.10)」의 자료와, 한국회계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IFRS 도입과 관련한 감독기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05년 이후 공인회계사의 '위상제고'라는 목표 하에,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가경쟁력 대비 회계투명성 평가순위가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현재는 IFRS 도입과 발맞추어 매년 단위로 「기업회계기준 실무적용사례」 및 「IFRS 적용매뉴얼」등의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회원연수(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s : CPD)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주체이며, 이를 통한 IFRS 교육과목의 개설을 통해 공인회계사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공인회계사회에서는 IFRS 적용과 함께, 신 국제감사기준(New International Standards of Auditing : New ISA)의 도입관련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구 및 회계학회·유관기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회계법인의 경우 감독기구 및 유관기관에 IFRS 도입과 관련한 실무자료 제공 및 관련 공개초안의 검토의견 제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FRS에 대한 실무경험자 및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에서 IFRS에 능통한 집단이 회계법인일 것이다. Big 4 회계법인 및 중소형 회계법인 대다수가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의 차이점을 분석·요약하여 IFRS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에 홍보하고, 기업체에게 IFRS 구축업무를 의뢰받고 있는 실정이다. IFRS를 도입해야 하는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이미 업종별로 회계법인-기업체 간 구축업무는 시작단계를 벗어나 진행단계에 있는 상태이다. 금융업의 경우 대략적으로 은행과 회계법인이 IFRS구축에 대하여 4단계 중 2단계의 구축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완성단계에 있는 기업체는 없는 실정이다. 2011년 전면도입인 경우를 감안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으로 인하여 상장법인의 경우 적어도 2009년부터 IFRS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IFRS 구축비용 부분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실정으로 남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책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회계학회는 2007년 3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산학협력조인식⁹⁾을 통하여 회원인 전국 회계학 교수 1500여명을 대상으로 공인회계사회의 준회원의 자격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감독기관 및 공인회계사회에서 발주하는 IFRS 도입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회계학회에는 IFRS와 관련한 많은 연구서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회계학 수업에 제공될 교재 및 내용에 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FRS에 대한 강의자료로서 현재까지는 유럽의 몇 개 회사에서만 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작성사례가 알려진 바 있으나, 학계 또한 회계학 전공학생에게 제공할 학습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9) 한국회계학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산학협력을 체결(2007.3.21)하고 이에 관한 의정서를 전달한 바 있다.

다.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에 따른 회계학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¹⁰⁾

IFRS와 현행 회계기준(K-GAAP)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IFRS의 경우 Principle-Based이며 현행회계기준은 Rule-Based에 가깝다는 것이다. K-GAAP이 Principle이 아니라기보다는 Principle의 기저가 되는 Framework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IFRS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으로는 적용의견서/실무의견서/질의회신 등의 논리적 일관성이 종종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IFRS는 공정가치 개념을 중요시 하는 반면, 기존 K-GAAP 또한 공정가치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측정 인프라가 열악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금융상품, 영업권, 무형자산, 주식기준보상, 충당부채, 종업원 급여 등 측정에 대한 실무적용방법론이 사실상 부재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전의 회계 요소와 관련된 회계교육의 포커스는 식별, 인식, 측정, 기록, 전달, 해석의 여섯 단계 중 기록·전달·해석에 맞추어져 있었다. IFRS하에서는 공정가치 평가와 같은 판단의 요소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회계교육의 단계별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즉 1단계 교육은 식별·인식·측정이며, 2단계 교육은 기록·전달·해석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1단계 교육인 식별·인식·측정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기준서의 통합으로 인한 일관성 및 체계성 확보를 통해 Framework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측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의 경우 중전의 K-GAAP의 유가증권(기준서 제8호), 전환증권(기준서 제9호), 채권채무조정(제13호),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해석 53-70) 등과 같은 기준서가 K-IFRS 제1032호(표시), 1039호(인식과 측정), 제11087호(공시) 등으로 통합되어 정리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1단계 교육에서 식별가능한 자산 및 부채의 측정에 대한 이슈,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분리, 자산상각 및 손상, 기대가치의 확률적 개념 등의 정립이 필요하며, 그 예로는 사업결합의 경우 K-GAAP에서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준칙, 무형자산(기준서 제5호)에서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제1038호(무형자산), 제1036호(자산손상), 제1037호(충당부채) 등으로 더욱 세분화 및 구체화 되어 처리된다는 점이 있다.

전통적인 재무회계 커리큘럼의 경우는 회계원리를 시작으로 하여, 재무회계, 중급회계(1·2단계), 고급회계, 재무제표 분석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판단된다. IFRS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의 커리큘럼의 변화로는 고급회계를 여러 파트로 분리하고, 첫 번째 파트에 사업결합·연결·조인트벤처·관계회사 등을 교육하고, 두 번째 파트에 금융상품·환율변동효과 등을 포함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정가치 평가의 교육내용으로 무형자산·금융상품(파생상품 포함)·스톡옵션·종업권 급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럽 최대의 회계전문가기구라 할 수 있는 ICAEW(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사례의 경우, IFRS 교육에 대하여 2개의 Level로 구성(Certificate / Diploma)하여 공인회계사

10) 김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학의 협력방안 : IFRS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교육세미나, 2008년 1월 참조

및 일반인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Certificate Level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Accreditation을 부여하고 있다. Diploma Level 과정은 Certificate Level의 심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ICAEW의 Certificate Level의 경우는 IFRS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이해에 중점을 둔 기본적 수준의 프로그램이며, 원칙 및 개념 그리고 간단한 기업 상황에 대한 IFRS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IFRS 하에서 작성된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 능력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이수시간은 기존 IFRS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다르며 대략 70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에 대한 종합평가는 인증평가센터에서 Paper-Based test가 실시되며, 2시간동안의 100% 객관식으로 2시간의 평가와, Accreditation Fee까지 응시료 £230가 소요된다.

Diploma Level 과정은 기업환경에 기준을 적용하고 해석을 개발하는 단계가 그 기본이며, 모든 IFRS에 대한 재무정보를 생산, 해석 및 적용하는 능력, 기업 상황에 맞는 IFRS 규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IFRS와 관련된 경영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목표로 두고 있다. 교육이수시간은 Certificate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수자의 기존의 IFRS 지식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략 100 내지 140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은 실제 IFRS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며, 평가는 별도로 없고 intensive교육으로 주로 Case Study 교육을 위주로 진행된다.

2. 선행연구 검토

주인기 외(2008)¹¹⁾는 국내 회계실무에 IFRS를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회계전문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회계감사인 이외에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회계전문인력인 PAIB(Professional Accountants in Business)을 육성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실제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기업 내 회계전문인력에 대한 회계교육 강화 방안으로, 일본의 회계전문대학원 제도와 중국의 회계전문교육기관의 예를 들었으며, 미국의 공인회계사 응시조건인 150학점 이수를 소개하였다. 이는 종래의 회계사라는 개념이 ‘공인회계사’에 국한되었던 점과 회계학 교육이 주로 공인회계사 양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현실을 비춰볼 때, 체계적인 회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회계실무자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데 그 초점이 있다.

주인기 외(2006)¹²⁾는 국제교육기준에 대한 해석과 함께, 주요 국가의 공인회계사 선발제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보수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준환 외(2006)¹³⁾는 IFRS의 범세계적인 수용이 국제재무보고와 관련한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11) 주인기 · 송인만 · 권수영 · 황이석 · 심태섭, “회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 회계교육 강화 방안”, 『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2008년 3월, pp.27 - 59

12) 주인기 · 권수영 · 황이석 · 심태섭, “국제교육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회계교육과 공인회계사 선발 및 교육제도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2006년 9월, pp.135 - 163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유의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IFRS 수용의 타당성, 장단점, 문제점 등을 분석·평가하여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수용방안을 피력하였다. IFRS에 대한 완전수용은 회계기준의 제정과 적용의 관점에서 효율성 및 국제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으나, 신뢰성과 유용성의 관점에서는 국가별 산업 및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하였다. 반면에 IFRS에 대한 부분수용은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처럼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IFRS와의 합치에 도달하거나, 일본처럼 IFRS의 등가기준(Equivalent)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도 가능한 대안이라 지적하였다.

김문철 외(2006)¹⁴⁾는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수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비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교수·공인회계사·회계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IFRS 수용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결과 75%의 응답자가 IFRS 전면수용에 관한 찬성의 의견이 있었으며, 대다수가 국제적인 대세라는 이유로 찬성의견을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 고유의 거래사항에 대한 추가적 회계기준의 제정에 대하여는 46%가 찬성하고, 41%가 반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회계정책당국은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국제회계기준의 통합과정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동 보고서는 주장하였다.

임승연 외(2008)¹⁵⁾는 IFRS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관련규정을 최초 도입할 경우의 예상되는 혼선과 시행착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 연구서는 미국과 유럽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부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한국의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 보고서는 회계기준의 표준화와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국제회계기준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평가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시장 기능에 맡기는 방안이 정부산하 감독기관에 맡기는 방안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인만 외(2007)¹⁶⁾는 IFRS 도입의 필요성과 유럽국가 및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도입현황을 소개하고, IFRS 도입모형을 분류하였다. IFRS를 법규에서 인정하는 방법과 IFRS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을 혼합하여 총 6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IFRS를 국내법규에서 채택하고 IFRS의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전략이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채택하여야 할 방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견해가 국내회계기준의 국제적 신뢰도가 미약한 현 시점에서 국제적정합성과 인지도를 달성할 수

13) 오준환·김호중·김성남, “국제회계기준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수용수준, 대상 및 시기의 결정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5권 제2호, 2006년 6월, pp.31-58

14) 김문철·안영균·정혜영, “국제회계기준 전면 수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2006년 9월, pp.165-194

15) 임승연·최선화·송인만·고승의·이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과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 연구』 제47호, 2008, pp.59-85

16) 송인만·이창우·이갑재·남혜정, “국제회계기준 도입모형 및 전략”, 『회계와 감사 연구』 제45호, 2007, pp.187-208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경호 외(2007)¹⁷⁾는 IFRS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공인회계사회 또는 Big4 회계법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회계기준의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유관기관들과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최 관 외(2008)¹⁸⁾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제정여부를 검토하고,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와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을 제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쉽고 간편하여야 하며,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 비용이 절감되어야 한다는 경제적인 측면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세법이나 세무회계 규정과 조화가 잘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송인만 외(2006)¹⁹⁾는 우리나라 회계신인도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회계제도의 개혁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동 연구보고서는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및 기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회계분야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3.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회계교육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교육기준에서 제시된 교육커리큘럼의 소개를 통해 접근한 보고서²⁰⁾도 제시된 바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IFRS 도입방향 혹은 회계학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IFRS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집단의 전반적인 인지도 파악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IFRS교육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연구방안 제시 이전에 이해관계자 집단의 인지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IFRS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별 인지도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는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17) 김경호·정영기·김경태·이영한,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회계 및 공시관련 제 법률간의 상충과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년 5월 30일

18) 최 관·정영기·박종일·윤승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관한 설문연구”, 2008년 하계 국제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2008년 6월

19) 송인만·이창우·이갑재·정도진·남혜정, “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방안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 연구」 제44호 특별기고논문, 2006, pp.1-26

20) 문택곤·이종운, “IFAC 국제회계교육기준에 입각한 한국 회계학교육의 개선방안”, 한국회계학회 2006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III. 설문조사의 설계

1. 설문조사의 대상

본 연구는 회계학교육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IFRS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회계교육의 변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분석·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는 회계학 전공학생(이하 ‘학생’), 회계학 교수(이하 ‘교수’), 공인회계사·세무사(이하 ‘전문가’), 회계관련 실무자(이하 ‘실무자’) 등으로 설문조사 대상을 구분하였다.

각 설문대상은 현행 회계학 교육을 이수하여 장차 회계업계에 종사할 미래의 회계전문가·실무자 집단인 회계학 전공학생, 회계이론의 전문가이자 회계학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급자로서의 회계학 교수(학자), 전문가로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회계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서 실무자 등 4개 관련자 집단이다.

2. 설문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서는 모두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대상자의 일반현황과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① 성별(남, 여)
- ② 직업(대학생, 경영학/회계학 교수, 공인회계사·세무사, 회계부서 실무자)
- ③ 연령별(20~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50세, 50세 이상)
- ④ 전공별(회계·세무학, 경영학, 경제학·무역학, 그 외 상경계열학과, 기타)

IFRS에 대한 질문은 모두 12문항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항 목	비 고
가. IFRS교육 준비관련	
1. IFRS의 2011년 시행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	IFRS에 관한 관심도
2. 현재 대학교에선 IFRS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3. 현재 교수님들은 IFRS에 대한 교육준비가 충분하다.	IFRS교육에 관한 대학의 준비과정
4. IFRS교육자료는 대학교에 거의 없는 편이다.	
5. IFRS에 대하여 회계법인은 내용적·실무적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IFRS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실무적 수준
6.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IFRS에 대한 전문가가 충분히 있다.	IFRS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표 1〉 설문지의 구성 (계속)

항 목	비 고
나. IFRS교육 주체관련	
1. IFRS에 대한 교육은 학원 및 사내교육만으로 충분하다.	IFRS의 내용수준
2. IFRS에 대한 교육은 공인회계사회에서 제공하는 Cyber 연수만으로도 충분하다.	전문가에 대한 IFRS교육준비
3. IFRS에 대한 교육은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회 등 전문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	전문가단체의 교육준비 여부
4. IFRS에 대한 교육은 대학 학사과정에서 필요하다.	IFRS의 학습기간
5. IFRS에 대한 교육은 회계학석사·박사과정에서 해야 한다.	IFRS의 학습기간
6. IFRS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어느 기관이 적합한가?	교육주체의 적합성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은 연구 대상자에게 2008년 11월 17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각 4개 집단 120부씩을 목표로 총 527부를 배포하여 361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 배포, 회수방법은 직접방문, e-mail, Fax 등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학교 및 회계법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회계학 교수의 경우 한국회계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도움을 얻어 전국에 소재한 각 대학 회계학 교수의 E-mail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회수 하였다.

설문소요시간은 설문 대상자에게 구두로 문의한 결과, 설문답변완성까지 대략 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이해 측면에서는 이해하기 쉽다는 평가를 확인하였다. 다만 일부 문항에서는 설문 응답자가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하여 현재 재학 중이 아니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응답으로 제출한 경우가 있다.

가. 회계학 전공 학생

회계학 전공학생 표본은 경원대학교,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회계학 전공 학생 각 40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3학년 이상의 재학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120부 목표에 167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중급회계 수업시간을 통해 배포되었으므로, 설문대상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32부 및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15부는 제외하였으며, 성실히 답변한 12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나. 회계학 교수

회계학 교수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도움을 얻어 「회계와 감사 연구」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전국의 각 대학 교수의 E-mail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 회수할 수 있었다. 총 120명의 교수님께 배포되었으며, 이중 64부가 회수되었다.

다. 회계·세무 전문가(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 5년 이상 회계사 각 30명씩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여 46부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얻어 그 외 법인의 경력 10년 이상의 이사급 회계사 40명을 대상으로 E-mail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여 24부를 확보하였다. 또한 현업 세무사를 20명을 대상으로 E-mail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여 9부를 확보하였다. 결론적으로 총 1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79부를 확보하였다.

라. 회계 실무자

회계 실무자의 경우 상장법인의 회계실무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계실무자의 개인 E-mail을 통해 총 120명에게 배포하여 이 중 51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 배포와 회수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배포와 회수

배포처	배포된 설문지	회수된 설문지 (회수율%)	분석대상설문지 (유효설문지 비율%)
대학생	167부	167부(100%)	120부(71.9%)
교수	120부	64부(53.3%)	64부(53.3%)
전문가	120부	79부(65.8%)	79부(65.8%)
실무자	120부	51부(42.5%)	51부(42.5%)

설문지에 대한 자료분석 방법은 SPSS 14.0 K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설문지의 각문항의 빈도분석 및 특성을 알아보기 기술통계량을 파악하고 또한 학생, 교수, 전문가, 실무자 등 4개 집단별 응답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설문의 문항들은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설문문항별 연구대상자의 집단간 인식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생, 교수, 전문가, 회계실무자 등 연구대상자의 4개 집단별 응답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

성별, 직업, 연령, 전공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설문문항에 대하여, <표 3>과 같이 결과를 정리하였다. 위의 숫자는 빈도수이고 바로 아래는 비율(%)을 나타낸다. 설문의 응답자는 남성(75.8%)이 과반수 이상이며, 연령의 경우 가장 표본수가 많은 학생집단이 위치한 20~29세(46.5%)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에 있어서도 회계·세무학 전공(37.9%)과 경영학 전공(43.3%)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가. 성 별

연구대상자에 따른 성별의 빈도를 살펴보면 학생 중 남자는 77명, 여자 43명, 교수 중 남자는 59명, 여자 5명, 전문가 중 남자 63명, 여자 16명, 실무자 중 남자가 39명, 여자가 12명이었다. 4개 집단 모두 남자의 빈도가 높았다.

나. 연 령

연구대상자에 따른 연령의 빈도를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20~29세에 120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교수의 경우 30~34세 이하 3명, 35~39세 이하 13명, 40~49세 이하 27명, 50세 이상 21명 순위이며, 전문가는 20~29세 이하 15명, 30~34세 이하 20명, 35~39세 이하 17명, 40~49세 이하 19명, 50세 이상 8명 순위였다. 그리고 실무자는 20~29세 이하 11명, 30~34세 이하 26명, 35~39세 이하 5명, 40세~49세 이하 9명의 순위를 나타낸다.

다. 전 공

연구대상자에 따른 전공의 빈도를 살펴보면 학생은 경영학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세무학 29명, 경제·무역학 12명, 그 외 상경계열 1명, 기타전공자가 10명 순위였다. 교수의 경우 회계·세무학전공이 59명이며, 경영학 전공이 5명이었다. 전문가의 경우 경영학 전공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계·세무학 전공자가 18명, 경제·무역학 전공 9명, 그 외 상경계열 1명, 기타전공자가 6명이었다. 실무자의 경우는 경영학 전공이 18명, 회계·세무학 전공이 13명, 경제·무역학 전공자가 13명으로 동일하였으며, 그 외 상경계열 전공이 3명, 기타전공자가 4명 순위였다.

<표 3> 연구대상자의 4개 집단별 교차분석

(N=314)

문 항	구 분	학생	교수	전문가	실무자	전체
귀하의 성별은?	남자	77	59	63	39	238
		(24.5%)	(18.8%)	(20.1%)	(12.4%)	(75.8%)
	여자	43	5	16	12	76
		(13.7%)	(1.6%)	(5.1%)	(3.8%)	(24.2%)
귀하의 연령은?	20~29세 이하	120		15	11	146
		(38.2%)		(4.8%)	(3.5%)	(46.5%)
	30~34세 이하		3	20	26	49
			(1%)	(6.4%)	(8.3%)	(15.7%)

〈표 3〉 연구대상자의 4개 집단별 교차분석 (계속)

(N=314)

문 항	구 분	학생	교수	전문가	실무자	전체
귀하의 연령은?	35~39세 이하		13	17	5	35
			(4.1%)	(5.4%)	(1.6%)	(11.1%)
	40~49세 이하		27	19	9	55
			(8.6%)	(6%)	(2.9%)	(17.5%)
	50세 이상		21	8		29
			(6.7%)	(2.5%)		(9.2%)
귀하의 전공은?	회계·세무학	29	59	18	13	119
		(9.2%)	(18.8%)	(5.7%)	(4.1%)	(37.8%)
	경영학	68	5	45	18	136
		(21.7%)	(1.6%)	(14.3%)	(5.7%)	(43.3%)
	경제·무역학	12		9	13	34
		(3.8%)		(2.9%)	(4.1%)	(10.8%)
	그 외 상경계열	1		1	3	5
		(0.3%)		(0.3%)	(1%)	(1.6%)
	기타전공	10		6	4	20
		(3.2%)		(1.9%)	(1.3%)	(6.4%)

IV. 설문문항별 검증 및 결과

1. 실증분석결과

가. IFRS교육 준비 관련

(1) 설문항목 : IFRS의 2011년 시행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

회계 관련자라면 IFRS의 2011년 시행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본 설문은 설문응답자에게 IFRS도입까지의 기간이 멀지 않았음을 인지해 주기위해 포함된 설문항목이다. 다만 도입사실 뿐 아니라 각 집단이 IFRS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의미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IFRS 도입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에 관한 설문결과

항 목	N=314 (100%)	집단별				합 계
		학생	교수	전문가	실무자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0(8.3%)		1(1.3%)	4(7.8%)	15(4.8%)
② 그렇지 않다		21(17.5%)	3(4.7%)	3(3.8%)	12(23.5%)	39(12.4%)
③ 보통이다		45(37.5%)	6(9.4%)	7(8.9%)	19(37.3%)	77(24.5%)
④ 그렇다		29(24.2%)	18(28.1%)	31(39.2%)	15(29.4%)	93(29.6%)
⑤ 매우 그렇다		15(12.5%)	37(57.8%)	37(46.8%)	1(2%)	90(28.7%)
합 계		120(100%)	64(100%)	79(100%)	51(100%)	314(100%)
척도평균		3.15	4.39	4.27	2.94	-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value	P-value
집단간		120.689	3	40.230	41.741	0.000***
집단내		298.776	310	0.964		
전 체		419.465	313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IFRS 시행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는 그렇다[93(29.6%)]와 매우 그렇다[90(28.7%)], 보통이다[77(24.5%)]로 대다수가 IFRS 도입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척도평균에서 전문가(4.27)와 교수(4.39)는 IFRS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무자(2.94)의 경우 IFRS 도입에 대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4개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여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000)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와 같이 어느 집단간에 따라 IFRS 시행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Multiple Comparisons LSD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과 교수(유의확률 0.000), 학생과 전문가(유의확률 0.000), 교수와 실무자(유의확률 0.000), 전문가와 실무자(유의확률 0.000) 집단간 유의적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IFRS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교수, 전문가, 학생, 실무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서는 교육의 제공자인 교수 및 직접적으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의 IFRS에 관한 관심도가 타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무자의 경우 아직 IFRS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 5〉 IFRS 도입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집단(1)	집단(2)	평균 차이 (집단1-2)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학 생	교 수	-1.24	0.15	0.000***	-1.54	-0.94
	전문가	-1.12	0.14	0.000***	-1.40	-0.84
	실무자	0.21	0.16	0.204	-0.11	0.53
교 수	학 생	1.24	0.15	0.000***	0.94	1.54
	전문가	0.12	0.17	0.450	-0.20	0.45
	실무자	1.45	0.18	0.000***	1.09	1.81
전문가	학 생	1.12	0.14	0.000***	0.84	1.40
	교 수	-0.12	0.17	0.450	-0.45	0.20
	실무자	1.32	0.18	0.000***	0.98	1.67
실무자	학 생	-0.21	0.16	0.204	-0.53	0.11
	교 수	-1.45	0.18	0.000***	-1.81	-1.09
	전문가	-1.32	0.18	0.000***	-1.67	-0.98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설문항목 : 현재 대학교에서는 IFRS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IFRS 도입에 대한 로드맵 발표²¹⁾ 등 회계기준 관련기관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반면, 회계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에서는 얼마나 IFRS 교육과 관련하여 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이며, 이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6>과 같다.

대학에서의 IFRS교육 실시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120(38.2%)]와 보통이다[83(26.4%)], 매우 그렇지 않다[75(23.9%)]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4개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여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031)를 나타내었다.

21) 전에서 각주 18)의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 내용 참조

〈표 6〉 학부에서의 IFRS교육에 대한 설문결과

항 목	N=303 (96.5%)	집 단 별				합 계
		학 생	교 수	전문가	실무자	
① 매우 그렇지 않다		36(30%)	15(23.4%)	9(12.8%)	15(30.6%)	75(23.9%)
② 그렇지 않다		48(40%)	24(37.5%)	28(40%)	20(40.8%)	120(38.2%)
③ 보통이다		26(21.7%)	14(21.9%)	30(42.9%)	13(26.5%)	83(26.4%)
④ 그렇다		10(8.3%)	10(15.6%)	3(4.3%)	1(2.1%)	24(7.6%)
⑤ 매우 그렇다			1(1.6%)			1(0.3%)
합 계		120(100%)	64(100%)	70(100%)	49(100%)	303(96.5%)
척도평균		2.08	2.34	2.39	2.00	-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value	P-value
집단간		7.322	3	2.441	2.988	0.031**
집단내		244.190	299	0.817		
전체		251.512	302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7〉 학부에서의 IFRS교육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집단(1)	집단(2)	평균 차이 (집단1-2)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학 생	교 수	-0.26	0.14	0.064*	-0.54	0.0149
	전문가	-0.30	0.14	0.027**	-0.57	-0.0349
	실무자	0.0833	0.15	0.587	-0.22	0.38
교 수	학 생	0.26	0.14	0.064**	-0.0149	0.54
	전문가	-0.0420	0.16	0.789	-0.35	0.27
	실무자	0.34	0.17	0.046**	0.00616	0.68
전문가	학 생	0.30	0.14	0.027**	0.0349	0.57
	교 수	0.0420	0.16	0.789	-0.27	0.35
	실무자	0.39	0.17	0.023**	0.0545	0.72
실무자	학 생	-0.0833	0.15	0.587	-0.38	0.22
	교 수	-0.34	0.17	0.046**	-0.68	-0.00616
	전문가	-0.39	0.17	0.023**	-0.72	-0.0545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7>과 같이 대학에서의 IFRS 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답변의 차이가 있는지 Multiple Comparisons LSD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과 교수(유의확률 0.064), 학생과 전문가(유의확률 0.027), 교수와 실무자(유의확률 0.046), 전문가와 실무자(유의확률이 0.023)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IFRS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답변은 전문가, 교수, 학생, 실무자 순으로 나타났다. 본 항목의 전문가와 실무자의 검증결과는 대학교 내 직접적인 교육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가운데, 실무자가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대학교의 회계학 교육이 실무에서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도 마찬가지로 대학교의 IFRS 교육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본 설문항목의 실증분석결과는 대학교 내에서의 회계학 교육프로그램이 아직 IFRS에 관한 내용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 및 실무자 그룹이 타 그룹에 비해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에서는 IFRS에 대한 내용적·제도적 장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설문항목 : 현재 회계학교수는 IFRS에 대한 교육준비가 충분하다.

IFRS 시행에 대비하여 회계교육의 공급자인 회계학교수는 이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이며, 이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IFRS교육관련 교수의 수업준비에 대한 각 집단의 인지도 설문결과

항 목	N=302 (96.2%)	집단별				합 계
		학 생	교 수	전문가	실무자	
① 매우 그렇지 않다		9(7.5%)	8(12.5%)	11(15.7%)	16(33.3%)	44(14.6%)
② 그렇지 않다		41(34.1%)	34(53.1%)	28(40%)	17(35.4%)	120(39.7%)
③ 보통이다		43(35.8%)	11(17.2%)	28(40%)	11(22.9%)	93(30.7%)
④ 그렇다		23(19.2%)	10(15.6%)	3(4.3%)	4(8.4%)	40(13.3%)
⑤ 매우 그렇다		4(3.4%)	1(1.6%)			5(1.7%)
합 계		120(100%)	64(100%)	70(100%)	48(100%)	302(100%)
척도평균		2.77	2.41	2.33	2.06	-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value	P-value
집단간		20.178	3	6.726	7.917	0.000***
집단내		253.160	298	0.850		
전 체		273.338	301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IFRS교육에 대한 교수의 준비도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120(38.2%)]와 보통이다[93(29.64%)], 매우 그렇지 않다[44(14.1%)]가 나타났으며,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4개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여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000)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서와 같이 IFRS 교육에 대한 교수의 준비도에 대한 각 집단별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 Multiple Comparisons LSD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과 교수(유의확률 0.012), 학생과 전문가(유의확률 0.002), 학생과 실무자(유의확률 0.000)로 학생은 다른 모든 집단에 대하여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수와 실무자(유의확률 0.052)집단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생집단은 다른 모든 집단과 큰 폭으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의 수업준비도에 대한 의견은 학생, 교수, 전문가, 실무자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순서는 교수의 수업준비도에 대해 IFRS교육의 직접당사자인 교수와 학생의 의견이 외부당사자인 전문가, 실무자보다 더욱 높은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이한 것은 직접당사자 중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이 교수의 의견보다 더욱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교수의 수업 준비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IFRS교육관련 교수의 수업준비에 대한 각 집단의 인식도 사후검증 결과

집단(1)	집단(2)	평균 차이 (집단1-2)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학 생	교 수	0.36	0.14	0.012**	0.0797	0.64
	전문가	0.44	0.14	0.002***	0.17	0.71
	실무자	0.70	0.16	0.000***	0.39	1.01
교 수	학 생	-0.36	0.14	0.012**	-0.64	-0.0797
	전문가	0.0777	0.16	0.626	-0.24	0.39
	실무자	0.34	0.18	0.052*	-0.00259	0.69
전문가	학 생	-0.44	0.14	0.002***	-0.71	-0.17
	교 수	-0.0777	0.16	0.626	-0.39	0.24
	실무자	0.27	0.17	0.125	-0.0738	0.61
실무자	학 생	-0.70	0.16	0.000***	-1.01	-0.39
	교 수	-0.34	0.18	0.052*	-0.69	0.00259
	전문가	-0.27	0.17	0.125	-0.61	0.0738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4) 설문항목 : IFRS교육자료는 대학교에 거의 없는 편이다.

IFRS 시행에 대비하여 회계교육의 공급자인 회계학 교수의 준비도와 함께, 교육의 공급지원 기관인 학교에도 IFRS 교육자료가 충분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이며, 이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10>과 같다.

IFRS교육관련 자료에 대하여 대학교는 거의 없다는 설문에 전체적으로 보통이다[97(30.9%)]와 그렇다[96(30.6%)], 매우 그렇다[57(18.2%)]가 나타났으며, 대체로 IFRS교육자료가 없는 편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4개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여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000)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IFRS에 대한 대학의 교육자료 확보관련 설문결과

항 목	N=302 (96.2%)	집 단 별				합 계
		학 생	교 수	전문가	실무자	
① 매우 그렇지 않다		2(1.7%)	1(1.5%)	5(7%)	5(10.4%)	13(4.1%)
② 그렇지 않다		8(6.7%)	17(28.6%)	11(15.5%)	3(6.3%)	39(12.4%)
③ 보통이다		32(26.9%)	17(26.6%)	36(50.7%)	12(25%)	97(30.9%)
④ 그렇다		49(41.1%)	15(23.4%)	13(18.3%)	19(39.5%)	96(30.6%)
⑤ 매우 그렇다		28(23.6%)	14(21.9%)	6(8.5%)	9(18.8%)	57(18.2%)
합 계		119(100%)	64(100%)	71(100%)	48(100%)	302(96.2%)
척도평균		3.78	3.38	3.06	3.50	-
구 분		제 곱 합	자 유 도	평 균 제 곱 합	F-value	P-value
집 단 간		24.287	3	8.096	7.513	0.000***
집 단 내		321.094	298	1.077		
전 체		345.381	301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11>에서와 같이 IFRS 교육에 대한 학교의 자료준비 불충분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 Multiple Comparisons LSD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문가와 학생(유의확률 0.000), 전문가와 교수(유의확률 0.076), 전문가와 실무자(유의확률 0.023)으로 전문가는 모든 집단과의 유의적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학생과 교수(유의확률 0.012)집단간에도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한 의견결과는 학생, 실무자, 교수, 전문가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순서는 교육의 수혜자 그룹인 학생의 경우 대학교에서의 IFRS 자료와 사설교육기관의 IFRS 자료를 비교할 기회가 많았을 것이며, 이에 대학에서의 실제 자료가 그들의 기대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무자는 대학교재와 사설교육기관의 교재를 비교할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 대학교재의 IFRS 반영에 대하여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 11〉 IFRS에 대한 대학의 교육자료 확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집단(1)	집단(2)	평균 차이 (집단1-2)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학 생	교 수	0.41	0.16	0.012**	0.0899	0.72
	전문가	0.73	0.16	0.000***	0.42	1.03
	실무자	0.28	0.18	0.114	-0.0678	0.63
교 수	학 생	-0.41	0.16	0.012**	-0.72	-0.0899
	전문가	0.32	0.18	0.076*	-0.0334	0.67
	실무자	-0.13	0.20	0.529	-0.52	0.27
전문가	학 생	-0.73	0.16	0.000***	-1.03	-0.42
	교 수	-0.32	0.18	0.076*	-0.67	0.0334
	실무자	-0.44	0.19	0.023**	-0.83	-0.0619
실무자	학 생	-0.28	0.18	0.114	-0.63	0.0678
	교 수	0.13	0.20	0.529	-0.27	0.52
	전문가	0.44	0.19	0.023**	0.0619	0.83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본 설문항목의 결과는 회계학 학습에 있어, 교육의 수혜자 그룹인 학생 및 실무자가 회계학 교육의 장소로 학교가 아닌 사설학원을 선택하고 신뢰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본 설문결과를 통해 학생 및 실무자 그룹은 학교의 회계교육자료가 최근의 회계 동향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수그룹 또한 IFRS 도입과 관련한 교육방향변화에 있어 학교가 이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설문항목 2, 설문항목 3 및 본 설문항목은 대학에서의 IFRS 교육실시에 대한 항목이므로, 전문가 및 실무자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응답에는 일부 오류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설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수집단 및 학생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로 판단된다.

(5) 설문항목 : IFRS에 대하여 회계법인은 내용적·실무적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본 문항에서는 IFRS의 실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는 얼마나 IFRS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이며, 이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IFRS에 대한 전문가의 학습수준에 대한 설문결과

항 목	N=309 (98.4%)	집단별				합 계
		학 생	교 수	전문가	실무자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0(8.6%)	3(4.7%)	1(1.3%)	3(6%)	17(5.5%)
② 그렇지 않다		34(29.3%)	18(28.1%)	8(10.1%)	18(36%)	78(25.2%)
③ 보통이다		51(43.9%)	25(39.1%)	27(34.1%)	12(24%)	115(37.2%)
④ 그렇다		15(12.9%)	15(23.4%)	32(40.5%)	15(30%)	77(24.9%)
⑤ 매우 그렇다		6(5.3%)	3(4.7%)	11(14%)	2(4%)	22(7.2%)
합계		116(100%)	64(100%)	79(100%)	50(100%)	309(100%)
척도평균		2.77	2.95	3.56	2.90	-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value	P-value
집단간		31.169	3	10.390	11.335	0.000***
집단내		279.569	305	0.917		
전 체		310.738	308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IFRS에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는 IFRS 관련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정통한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설문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115(36.7%)]과 그렇지 않다[78(24.8%)]와 그렇다[77(24.5%)]로 대체적으로 IFRS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신뢰도는 보통 정도의 의견을 나타내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4개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여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000)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에서와 같이 실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IFRS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달변의 차이가 있는지 Multiple Comparisons LSD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문가와 학생(유의확률 0.000), 전문가와 교수가(유의확률 0.000), 전문가와 실무자(유의확률 0.000)로 전문가는 모든 집단에 대하여 매우 큰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IFRS에 대한 전문가들의 사회적 신뢰도 평가는 전문가, 교수, 실무자,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서는 전문가가 IFRS에 대하여 충분히 실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문가 이외의 그룹들은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 크게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설문결과는 전문가 집단은 IFRS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인지하고 있는 반면, 교수, 실무자, 학생은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전문가집단이 IFRS에 대한 학습 및 실무적용사례 개발과 함께,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신뢰도 회복도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표 13〉 IFRS에 대한 전문가의 학습수준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집단(1)	집단(2)	평균 차이 (집단1-2)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학 생	교 수	-0.19	0.15	0.213	-0.48	0.11
	전문가	-0.79	0.14	0.000***	-1.06	-0.51
	실무자	-0.13	0.16	0.413	-0.45	0.19
교 수	학 생	0.19	0.15	0.213	-0.11	0.48
	전문가	-0.60	0.16	0.000***	-0.92	-0.29
	실무자	0.0531	0.18	0.769	-0.30	0.41
전문가	학 생	0.79	0.14	0.000***	0.51	1.06
	교 수	0.60	0.16	0.000***	0.29	0.92
	실무자	0.66	0.17	0.000***	0.32	1.00
실무자	학 생	0.13	0.16	0.413	-0.19	0.45
	교 수	-0.0531	0.18	0.769	-0.41	0.30
	전문가	-0.66	0.17	0.000***	-1.00	-0.32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6) 설문항목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IFRS에 대한 전문가가 충분히 있다.

IFRS 관련기관들이 IFRS에 대한 도입 및 시행에 대하여 많은 관련자료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과연 IFRS에 대한 전문가인지 그리고 IFRS에 대하여 실무경험이 정통한 전문가는 과연 얼마나 있는지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설문이며, 이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14>와 같다.

실질적으로 IFRS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150(47.8%)]와 보통이다[90(28.7%)], 매우 그렇지 않다[55(17.5%)]로 나타나 각 집단의 IFRS 전문가의 충분성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4개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여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00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IFRS에 대한 전문가 존재여부에 관한 설문결과

항 목	N=309 (98.4%)	집 단 별				합 계
		학 생	교 수	전문가	실무자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3(11.4%)	14(22%)	8(10.1%)	20(40%)	55(17.5%)
② 그렇지 않다		59(50.8%)	40(62.5%)	36(45.6%)	15(30%)	150(47.8%)
③ 보통이다		40(34.5%)	8(12.5%)	31(39.2%)	11(22%)	90(28.7%)
④ 그렇다		3(2.5%)	1(1.5%)	4(5.1%)	4(8%)	12(3.8%)
⑤ 매우 그렇다		1(0.8%)	1(1.5%)			2(0.6%)
합 계		116(100%)	64(100%)	79(100%)	50(100%)	309(98.4%)
척도평균		2.31	1.98	2.39	1.98	-
구 분		제 곱 합	자 유 도	평 균 제 곱 합	F-value	P-value
집 단 간		9.699	3	3.233	5.256	0.002***
집 단 내		187.627	305	0.615		
전 체		197.327	308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15>에서와 같이 IFRS 전문가에 대한 모든 집단의 견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Multiple Comparisons LSD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과 교수(유의확률 0.008), 학생과 실무자(유의확률 0.013), 교수와 전문가(유의확률 0.002), 전문가와 실무자(유의확률 0.004) 집단간 유의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IFRS 전문가의 충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은 전문가, 학생, 교수, 실무자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가운데, 설문항목 5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는 IFRS 전문가의 부재에 대하여 다른 그룹보다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부재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교수 및 실무자는 이와 대조적으로 IFRS 전문가 부재에 대한 심각성을 매우 높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설문항목의 결과는 그간 전문가들이 IFRS 도입추진 및 진행경과에 있어 노력해 왔으나, IFRS 보수교육 및 사회적 신뢰도에 대하여는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글로벌화 된 제도의 도입 및 시행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 15〉 IFRS에 대한 전문가 존재여부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집단(1)	집단(2)	평균 차이 (집단1-2)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학 생	교 수	0.33	0.12	880.008***	0.0856	0.57
	전문가	-0.0821	0.11	0.474	-0.31	0.14
	실무자	0.33	0.13	0.013**	0.0692	0.59
교 수	학 생	-0.33	0.12	0.008***	-0.57	-0.0856
	전문가	-0.41	0.13	0.002***	-0.67	-0.15
	실무자	0.00438	0.15	0.976	-0.29	0.30
전문가	학 생	0.0821	0.11	0.474	-0.14	0.31
	교 수	0.41	0.13	0.002***	0.15	0.67
	실무자	0.41	0.14	0.004***	0.13	0.69
실무자	학 생	-0.33	0.13	0.013**	-0.59	-0.0692
	교 수	-0.00438	0.15	0.976	-0.30	0.29
	전문가	-0.41	0.14	0.004***	-0.69	-0.13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나. IFRS교육 주체 인식도 관련

(1) 설문항목 : IFRS에 대한 교육은 학원 및 사내교육만으로 충분하다.

IFRS 내용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IFRS는 기존 기업회계기준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학교가 아닌 사설기관의 보수교육 혹은 회사 사내의 교육만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작성된 설문이며, 이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16>과 같다.

IFRS 교육내용의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사설기관의 보수교육이나 사내교육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의 설문결과는 그렇지 않다[152(48.4%)]와 매우 그렇지 않다[79(25.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4개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여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000)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IFRS 교육내용의 충분성 검토에 대한 설문결과

항 목	N=314 (100%)	집 단 별				합 계
		학 생	교 수	전문가	실무자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6(13.3%)	31(48.4%)	11(13.9%)	21(41.1%)	79(25.2%)
② 그렇지 않다		67(55.8%)	23(35.9%)	41(51.8%)	21(41.1%)	152(48.4%)
③ 보통이다		27(22.5%)	7(10.9%)	14(17.7%)	4(7.9%)	52(16.6%)
④ 그렇다		10(8.4%)	2(3.2%)	13(16.6%)	5(9.9%)	30(9.5%)
⑤ 매우 그렇다			1(1.6%)			1(0.3%)
합 계		120(100%)	64(100%)	79(100%)	51(100%)	314(100%)
척도평균		2.26	1.73	2.37	1.86	-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value	P-value
집단간		20.003	3	6.668	8.763	0.000***
집단내		235.870	310	0.761		
전 체		255.873	313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17〉 IFRS 교육내용의 충분성 검토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집단(1)	집단(2)	평균 차이 (집단1-2)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학 생	교 수	0.52	0.14	0.000***	0.26	0.79
	전문가	-0.11	0.13	0.390	-0.36	0.14
	실무자	0.40	0.15	0.007***	0.11	0.68
교 수	학 생	-0.52	0.14	0.000***	-0.79	-0.26
	전문가	-0.63	0.15	0.000***	-0.92	-0.34
	실무자	-0.13	0.16	0.434	-0.45	0.19
전문가	학 생	0.11	0.13	0.390	-0.14	0.36
	교 수	0.63	0.15	0.000***	0.34	0.92
	실무자	0.50	0.16	0.001***	0.20	0.81
실무자	학 생	-0.40	0.15	0.007***	-0.68	-0.11
	교 수	0.13	0.16	0.434	-0.19	0.45
	전문가	-0.50	0.16	0.001***	-0.81	-0.20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17>과 같이 어느 집단간에 따라 IFRS의 학습내용 난이도가 높지 않으므로 사설교육기관의 보수교육 혹은 사내교육 등으로 충분히 보완가능한지에 관하여 Multiple Comparisons LSD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과 교수(유의확률 0.000), 학생과 실무자(유의확률 0.007), 교수와 전문가(유의확률 0.000), 전문가와 실무자(유의확률 0.001)로 집단간 유의적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집단별 사내보수교육의 충분성 여부는 전문가, 학생, 실무자, 교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이러한 순으로 응답이 나타난 이유는, 전문가의 경우 사설교육기관의 보수교육이나 사내교육의 교육시행 주체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학생의 경우 사설교육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교육수혜의 주체로서 상대적인 긍정의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수의 경우 이들과는 반대로 IFRS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은 대학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IFRS에 대한 교육의 충분성 여부에 대한 모든 응답자 집단의 반응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IFRS가 단순한 보수교육으로는 숙지될 수 없으며, 체계적인 교육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이 제공되는 교육을 통하여야만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항목의 실증분석결과와 설문항목 (가)-4의 결과를 대조하여 보면 다른 의미로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설문항목 (가)-4에서 설문응답자는 정규교육기관인 대학을 믿지 못하는 한편, 본 항목에서 설문응답자는 사설교육에 대하여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IFRS 교육을 충분히 수행할 주체가 없다는 의미와 함께, 정규 교육기관인 대학 및 학계에서 IFRS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판단할 수 있다.

(2) 설문항목 : IFRS에 대한 교육은 공인회계사회에서 제공하는 연수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다.

전문가인 회원의 연수프로그램을 제작, 감독하는 기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있으며, 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하는 회원연수프로그램의 전문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설문이며, 이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18>과 같다.

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여부에 대한 설문에 그렇지 않다[165(52.5%)]와 보통이다[71(22.6%)], 매우 그렇지 않다[59(18.8%)]로 나타나 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하는 IFRS교육만으로는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4개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여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01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IFRS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교육내용 관련 설문결과

항 목	N=310 (98.7%)	집 단 별				합 계
		학 생	교 수	전문가	실무자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7(14.6%)	18(28.1%)	15(18.9%)	9(17.6%)	59(19%)
② 그렇지 않다		71(61.2%)	37(57.8%)	31(39.2%)	26(50.9%)	165(53.2%)
③ 보통이다		25(21.6%)	7(10.9%)	24(30.3%)	15(29.6%)	71(22.9%)
④ 그렇다		2(1.8%)	1(1.6%)	8(10.1%)	1(1.9%)	12(3.9%)
⑤ 매우 그렇다		1(0.8%)	1(1.6%)	1(1.5%)		3(1%)
합 계		116(100%)	64(100%)	79(100%)	51(100%)	310(100%)
척도평균		2.13	1.91	2.35	2.16	-
구 분		제 곱 합	자 유 도	평 균 제 곱 합	F-value	P-value
집 단 간		7.149	3	2.383	3.811	0.010**
집 단 내		191.319	306	0.625		
전 체		198.468	309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19〉 IFRS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교육내용 관련 사후검증 결과

집단(1)	집단(2)	평균 차이 (집단1-2)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학 생	교 수	0.22	0.12	0.071*	-0.0192	0.47
	전문가	-0.23	0.12	0.052*	-0.45	0.00185
	실무자	-0.0276	0.13	0.836	-0.29	0.23
교 수	학 생	-0.22	0.12	0.071*	-0.47	0.0192
	전문가	-0.45	0.13	0.001***	-0.71	-0.19
	실무자	-0.25	0.15	0.092*	-0.54	0.0414
전문가	학 생	0.23	0.12	0.052*	-0.00185	0.45
	교 수	0.45	0.13	0.001***	0.19	0.71
	실무자	0.20	0.14	0.165	-0.0819	0.48
실무자	학 생	0.0276	0.13	0.836	-0.23	0.29
	교 수	0.25	0.15	0.092*	-0.0414	0.54
	전문가	-0.20	0.14	0.165	-0.48	0.0819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19>에서와 같이 전문가 보수교육의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회의 교육신뢰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지 Multiple Comparisons LSD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수와 학생(유의확률 0.071), 교수와 전문가(유의확률 0.001), 교수와 실무자(유의확률 0.092)로 교수는 모든 집단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으며, 학생과 전문가(유의확률 0.052)도 약간의 유의적 차이가 있음이 조사되었다. 인식수준은 전문가, 실무자, 학생, 교수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며 이러한 순으로 응답이 나타난 이유는 설문항목 나-(1)과 비슷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며, 교수 집단의 경우 공인회계사회의 교육내용이 아닌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 집단 또한 IFRS에 대하여 더욱 전문화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이며, 전문가 스스로도 사회적 신뢰도 제고 및 질적 향상이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로도 해석 가능할 것이다.

(3) 설문항목 : IFRS에 대한 교육은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회 등 전문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

IFRS교육이 학교기관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회계법인 혹은 전문가 단체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다만, 본 문항에서는 전문가와 및 전문가 단체를 분리하지 않고 학교와 전문가 집단으로만 분리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IFRS교육은 전문가 단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한 설문결과

항 목	N=314 (100%)	집 단 별				합 계
		학 생	교 수	전문가	실무자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0.9%)	10(15.6%)	3(3.8%)		14(4.5%)
② 그렇지 않다		27(22.5%)	23(35.9%)	10(12.6%)	8(15.7%)	68(21.7%)
③ 보통이다		46(38.3%)	15(23.5%)	16(20.3%)	14(27.5%)	91(29%)
④ 그렇다		34(28.3%)	15(23.5%)	40(50.7%)	19(37.2%)	108(34.3%)
⑤ 매우 그렇다		12(10%)	1(1.5%)	10(12.6%)	10(19.6%)	33(10.5%)
합 계		120(100%)	64(100%)	79(100%)	51(100%)	314(100%)
척도평균		3.24	2.59	3.56	3.61	-
구 분		제 곱 합	자 유 도	평 균 제 곱 합	F-value	P-value
집 단 간		41.545	3	13.848	14.164	0.000***
집 단 내		303.080	310	0.978		
전 체		344.624	313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IFRS교육에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회 등 실무계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설문
에 전체적으로 그렇다[108(34.3%)]와 보통이다[91(29%)]으로 대체적으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회
가 교육제공기관으로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다만, 척도평균에서 교수(2.59)
는 다른 집단과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4개의 집
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여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000)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에서와 같이 IFRS 교육에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회의 교육신뢰도에 대한 견해의 차이
가 있는지 Multiple Comparisons LSD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수와 학생(유의확률 0.000), 교수와
전문가(유의확률 0.000), 교수와 실무자(유의확률 0.000)로 교수는 다른 집단과 매우 큰 유의적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학생과 전문가(유의확률 0.028), 학생과 실무자(0.027)집단간에도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생집단 그리고 교수집단은 각각 다른 모든 집
단에 대하여 유의적 차이가 있는 그룹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문가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실무자, 전문가, 학생, 교수 순으로 견해가 나타났다.

이러한 순서는 전문가가 IFRS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설문에 관하여 실무자와 전문가는 대
학교의 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치우쳐 왔다고 판단함을 엿볼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교수의 경우는
체계적인 기초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교가 IFRS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 IFRS교육은 전문가 단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집단(1)	집단(2)	평균 차이 (집단1-2)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학 생	교 수	0.65	0.15	0.000***	0.35	0.95
	전문가	-0.32	0.14	0.028**	-0.60	-0.0334
	실무자	-0.37	0.17	0.027**	-0.69	-0.0410
교 수	학 생	-0.65	0.15	0.000***	-0.95	-0.35
	전문가	-0.96	0.17	0.000***	-1.29	-0.64
	실무자	-1.01	0.19	0.000***	-1.38	-0.65
전문가	학 생	0.32	0.14	0.028**	0.0334	0.60
	교 수	0.96	0.17	0.000***	0.64	1.29
	실무자	-0.0509	0.18	0.775	-0.40	0.30
실무자	학 생	0.37	0.17	0.027**	0.0410	0.69
	교 수	1.01	0.19	0.000***	0.65	1.38
	전문가	0.0509	0.18	0.775	-0.30	0.40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본 설문항목의 결과, IFRS의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 관하여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IFRS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그룹이 전문가라는 견해에서는 교수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IFRS의 실체가 아직 불명확하지만, 실무에서 경험할 기회가 높은 전문가 집단이 주도적으로 제작한 교육프로그램에는 관심이 높다는 사회적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설문항목 : IFRS에 대한 교육은 대학 학사과정에서 필요하다.

IFRS 교육은 어느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학습시기에 이루어져야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이며, 이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22>과 같다.

IFRS 교육이 학부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설문결과는 그렇다[169(53.8%)]와 매우 그렇다[85(27%)], 보통이다[43(13.7%)]로 대다수가 학부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4개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여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000)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IFRS교육이 학부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한 설문결과

항 목	N=314 (100%)	집단별				합 계
		학 생	교 수	전문가	실무자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0.8%)	1(1.6%)	1(1.3%)		3(1%)
② 그렇지 않다		5(4.2%)	1(1.6%)	4(5.1%)	4(7.8%)	14(4.5%)
③ 보통이다		21(17.5%)	2(3.2%)	9(11.3%)	11(21.5%)	43(13.7%)
④ 그렇다		65(54.2%)	28(43.6%)	43(54.4%)	33(64.7%)	169(53.8%)
⑤ 매우 그렇다		28(23.3%)	32(50%)	22(27.9%)	3(6%)	85(27%)
합 계		120(100%)	64(100%)	79(100%)	51(100%)	314(100%)
척도평균		3.95	4.39	4.03	3.69	-
구 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합	F-value	P-value
집단간		15.056	3	5.019	7.943	0.000***
집단내		195.864	310	0.632		
전 체		210.920	313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23〉 IFRS교육이 학부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집단(1)	집단(2)	평균 차이 (집단1-2)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학 생	교 수	-0.44	0.12	0.000***	-0.68	-0.20
	전문가	-0.0753	0.12	0.514	-0.30	0.15
	실무자	0.26	0.13	0.048**	0.00229	0.53
교 수	학 생	0.44	0.12	0.000***	0.20	0.68
	전문가	0.37	0.13	0.007***	0.10	0.63
	실무자	0.70	0.15	0.000***	0.41	1.00
전문가	학 생	0.0753	0.12	0.514	-0.15	0.30
	교 수	-0.37	0.13	0.007***	-0.63	-0.10
	실무자	0.34	0.14	0.018**	0.0581	0.62
실무자	학 생	-0.26	0.13	0.048**	-0.53	-0.00229
	교 수	-0.70	0.15	0.000***	-1.00	-0.41
	전문가	-0.34	0.14	0.018**	-0.62	-0.0581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23>과 같이 IFRS 교육의 시행기관 및 학습시기에 대한 의견에 관하여 Multiple Comparisons LSD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수와 학생(유의확률 0.000), 교수와 전문가(유의확률 0.007), 교수와 실무자(유의확률 0.000)로 나타나 교수집단은 다른 집단과 유의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과 실무자(유의확률 0.048), 전문가와 실무자(유의확률 0.018)로 나타나 실무자 또한 다른 집단과의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FRS교육은 학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결과는 교수, 전문가, 학생, 실무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수는 교육시행자 겸 학습기간이 비교적 긴 학부과정에서 체계적으로 IFRS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다. 다만 실무자의 경우, 본 설문항목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이들은 이미 학부과정을 마쳤으므로 교육의 기회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설문항목 가-(3)의 전문기관의 교육 등 학교교육 이외의 과정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설문항목의 결과는 IFRS가 내용적으로 기업회계기준 틀을 완전히 벗어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기존의 회계원리 및 중급회계를 근간으로 IFRS로 많은 부분의 내용적인 변화와 체계적인 학습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계학의 기초를 수학하는 학부에서 IFRS 내용도 비교·분석되어 학습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모든 설문그룹이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설문항목 : IFRS에 대한 교육은 회계학 석사·박사과정에서 해야한다.

IFRS 교육이 학부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문항목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회계학 기초는 학부에서 학습되고 IFRS에 대한 교육은 석사이상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상의 분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이며, 이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학습과정상 IFRS교육과 회계학기초교육의 분리 필요성에 대한 설문결과

항 목	N=311 (99%)	집단별				합 계
		학 생	교 수	전문가	실무자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4(11.7%)	13(20.6%)	8(10.3%)	2(3.9%)	37(11.8%)
② 그렇지 않다		54(45.4%)	24(38.1%)	30(38.5%)	24(47.1%)	132(42%)
③ 보통이다		36(30.2%)	13(20.6%)	24(30.7%)	14(27.4%)	87(27.7%)
④ 그렇다		14(11.7%)	11(17.5%)	11(14.1%)	9(17.7%)	45(14.3%)
⑤ 매우 그렇다		1(1%)	2(3.2%)	5(6.4%)	2(3.9%)	10(3.2%)
합 계		119(100%)	63(100%)	78(100%)	51(100%)	311(99%)
척도평균		2.45	2.44	2.68	2.71	-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value	P-value
집단간		4.548	3	1.516	1.570	0.197
집단내		296.526	307	0.966		
전 체		301.074	310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학사 및 석사이상과정의 교육내용 조정을 통하여 IFRS 교육과 회계학 기초에 대한 교육을 분리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결과는 그렇지 않다[132(42%)]와 보통이다[87(27.7%)]로 대다수가 IFRS 교육이 석·박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4개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여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197)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후검증 결과분석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기로 한다.

4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이유는, IFRS 교육이 학부가 아닌 대학원 및 박사과정에서 별도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각 이해집단별 상황적인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비슷한 정도의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본 항목의 실증분석 결과는 학습과정을 분리한 개념으로 IFRS교육이 학부가 아닌 대학원 및 박사과정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현행 회계원리 및 중급회계 등 회계 입문과정에 해당하는 학부 과정에서 IFRS에 대한 내용보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문참여자 의견 결과이며, 모든

그룹이 수학과정의 분리에 관하여는 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6) 설문항목 : IFRS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어느기관이 적합한가?(순서 포함)

IFRS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는 현재 회계학교육의 기초와 심화과정을 제공하는 ① 대학교, 공인회계사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증하는 기관인 ② 한국공인회계사회, 법인별 자체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회계실무의 전문성을 띄고 있는 ③ 회계법인,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시험대비 및 회사의 회계업무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설기관인 ④ 기타 회계학 학원 등으로 구성하여 적합한 순서를 판단하기 위한 설문이며, 이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25>과 같다.

<표 25> IFRS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별 선호도 순서의 설문결과

항 목	N=300 (95.5%)	집단별				합계
		학생	교수	전문가	실무자	
① 대학교		50(42.7%)	40(67.7%)	26(34.8%)	26(53.1%)	142(47.3%)
② 공인회계사회		34(29.1%)	9(15.3%)	11(14.7%)	5(10.2%)	59(19.7%)
③ 회계법인		23(19.7%)	9(15.3%)	32(42.7%)	11(22.4%)	75(25%)
④ 기타 학원		10(8.5%)	1(1.7%)	6(8%)	7(14.3%)	24(8%)
합 계		117(100%)	59(100%)	75(100%)	49(100%)	300(100%)
χ^2 검정 통계량(확률값)				36.105(0.000***)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설문결과 제시된 4개의 항목 중 전체응답자 중 47.3%인 142명이 IFRS의 교육을 제공할 기관 중 ① 대학교를 선택하였다. 전체응답결과를 대상으로 한 선택항목별 같은 비율에 대한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goodness of fit test)결과 유의적 차이(0.000)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회계학 학원의 순으로 IFRS에 대한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서는 IFRS 학습기간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가를 제외한 다른 그룹의 경우 대학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결과이며, 전문가의 경우는 IFRS 교육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하여는 전문가 집단인 회계법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 결과로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의 경우 회계법인에 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교육주체 선호도를 두었는데 이는 회계법인에 대한 신뢰도 보다,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 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혹은 금융감독기구 등에서 IFRS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사설 학원기관은 주요 교육기관이 될 수 없다는 점에는 모든 설문그룹이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2. 실증분석 종합결과

설문지문항에 대한 5점척도에 의한 응답빈도분석결과에 대한 설문문항별 이해관계자 집단별 선호도의 평균값과 총평균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6>과 같으며, 각 집단간 인식차이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리한 현황은 <표 27>과 같다. <표 26>과 <표 27>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는 IFRS 교육준비 현황 및 IFRS 교육주체 인식도 조사로 2개 분야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다.

<표 26> 5점척도를 부여한 기술통계량 분석결과

문항	문항별 내용요약	개 별 평 균				총평균
		학생	교수	전문가	실무자	
가	IFRS 교육준비 관련					
1	IFRS 2011년 시행에 대한 인지도	3.15	4.39	4.03	2.94	3.65
2	현재 대학에서는 IFRS교육을 하고 있다	2.08	2.34	2.39	2.00	2.19
3	현재 교수들은 IFRS 교육준비가 충분하다	2.77	2.41	2.33	2.06	2.48
4	IFRS교육자료는 대학교에 거의 없다	3.78	3.38	3.06	3.50	3.48
5	회계법인은 IFRS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	2.77	2.95	3.56	2.90	3.03
6	IFRS전문가는 국내에 충분히 있다	2.31	1.98	2.39	1.98	2.21
나	IFRS 교육주체 인식도 관련					
1	IFRS는 학원 및 사내교육으로 충분하다	2.26	1.73	2.37	1.86	2.11
2	IFRS교육은 한공회CPD과정으로 충분하다	2.13	1.91	2.35	2.16	2.15
3	IFRS교육은 회계법인, 한공회에서 해야한다	3.24	2.59	3.56	3.61	3.25
4	IFRS는 학부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3.95	4.39	4.27	3.69	4.02
5	IFRS교육은 석·박사과정에서 해야한다	2.45	2.44	2.68	2.71	2.55
6	IFRS 교육기관에 대한 적합도	-	-	-	-	-

〈표 27〉 IFRS 교육관련 문항별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구 분	분산분석 결과		사후검증결과 인식수준 정도(순위)				비 고
	P-Value	유의적 차이도	학생	교수	전문가	실무자	
문항 가-1	0.000***	매우 크다	3	1	2	4	
문항 가-2	0.031**	약간 있다	3	2	1	4	
문항 가-3	0.000***	매우 크다	1	2	3	4	
문항 가-4	0.000***	매우 크다	1	3	4	2	
문항 가-5	0.000***	매우 크다	4	2	1	3	
문항 가-6	0.002***	매우 크다	2	3	1	4	
문항 나-1	0.000***	매우 크다	2	4	1	3	
문항 나-2	0.010***	매우 크다	3	4	1	2	
문항 나-3	0.000***	매우 크다	3	4	2	1	
문항 나-4	0.000***	매우 크다	3	1	2	4	
문항 나-5	0.197	없음					
문항 나-6	-	-	-	-	-	-	

※ ***, **, *는 양측검정에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문항 설명은 <표 26>의 내용 참조

먼저 IFRS 교육준비 현황 분야를 살펴보면, IFRS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및 이해도를 묻는 항목에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 집단의 관심도가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실무자들은 개별평균이 2.9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그들이 IFRS 보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다른 이해관계자보다 적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대학의 IFRS교육 준비과정을 조사하는 3개의 항목은 ① 대학에서의 현재 IFRS 교육과정 존재여부, ② 회계학교수의 IFRS 수업준비도, ③ 대학의 IFRS 교육관련자료 미확보 수준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모든 집단의 총평균이 2.19, 2.48, 3.48로 나타나 IFRS 교육준비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회계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IFRS 전문가 집단의 실무적 수준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전체평균은 보통이다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는 IFRS 실무경험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IFRS 전문가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이 IFRS 전문가가 국내에 충분히 있지 않다고 대답하여 제도시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IFRS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려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IFRS 교육주체 인식도와 관련하여는 ① IFRS의 학습내용 수준항목을 우선으로 하여, ② 전문가 단체의 IFRS 교육현황, ③ 전문가 단체의 교육주체가능성 여부, ④ IFRS의 학습기간, ⑤ IFRS 교육기관

에 대한 적합도 조사, ⑥ IFRS 교육에 적합한 기관별 순위 조사 등을 고려한 6개의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FRS 교육주체 인식도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IFRS 학습내용에 대하여는 학원 혹은 사설교육기관의 보습과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설문응답자가 IFRS의 학습이 쉽지 않으며 단기간으로는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울 것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회가 회원인 공인회계사에게 제공하는 전문가 교육의 수준도 전문가의 개별평균은 2.35를 감안하면, 충분하고 만족스런 교육내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교수집단을 제외하고 IFRS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수집단과 타 집단 간의 의견이 조율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회계법인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IFRS의 학습기간으로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IFRS는 학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회계학 석·박사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부에서의 회계학 교육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계학은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학부에서 학습하여 사회진출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FRS 교육기관의 적합성 여부에서는 대학교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기타 학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모든 공인회계사·세무사 응시대비 교육이 사설학원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IFRS 도입을 계기로 학계 및 업계가 회계교육의 주체로서의 입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경우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는 IFRS의 도입과 관련하여, 설문 및 실증분석을 통한 IFRS교육 관련 인지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FRS와 관련하여 제도적 혹은 내용적으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정작 이해관계자들의 IFRS교육제도 및 인지도를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IFRS도입 및 진행에 관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충분히 합의 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IFRS도입이라는 사회적 명제 이전에, IFRS교육이라는 주제로 이해관계자들에 접근하여 과연 그들이 IFRS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회계학 전공학생, 회계학 교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상장기업 회계부서 실무자 등 4개 관련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120부씩 총 527부를 배포하여 361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 통계분석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빈도분석, 설문문항별 5점 척도를 부여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별 검증은 회계학 교육제도 개편 및 IFRS 교육 관련

문제점에 대한 연구대상자 4개 집단간의 인식수준의 차이에 대하여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Multiple Comparisons LSD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IFRS의 2011년 시행에 관하여는 모든 그룹의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나 교육대상인 학생의 경우 도입에 대한 체감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으며, 실무자는 높은 관심도에 비해 IFRS 교육기회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 및 전문가 교육단체는 실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줄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재 대학교의 IFRS 교육 실시여부, 교수진의 IFRS 교육준비도, 대학의 IFRS 교육자료 확보와 관련하여는 설문 집단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IFRS 도입 및 적용에 관하여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나, IFRS 적용시 근간이 될 수 있는 교육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심과 토대를 구축하는데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설문항목들에 대하여 전문가 혹은 실무자 그룹이 답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교수집단의 실증분석결과도 부정적인 견해가 도출되었으며, 실무자 및 전문가도 대학의 현행 회계학 교육에 대하여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항목이란 점에서 IFRS 및 회계학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지도와 기대치를 조정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IFRS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한 사회적 신뢰도가 아직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사회에 IFRS 전문가가 충분히 있느냐는 설문에서도 대다수의 설문대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IFRS에 대한 전문가적 신뢰도 구축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인회계사회 및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등 회계유관기관은 이러한 사회의 비판적 시각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수준 높은 교육자료의 공동제작 등을 통해 사회에 전문가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넷째, IFRS 교육은 사설학원 및 회사 사내교육정도의 수준으로는 체계적으로 학습될 수 없다라고 설문응답자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으며, 학부 혹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하는 회원연수프로그램의 IFRS 교육수준에 대하여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 그룹의 응답 또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도 보다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만, 설문항목 3에서는 교수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전문가 집단 주도형 IFRS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는 전문가적인 신뢰도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으나, IFRS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그룹은 전문가가 가장 적합할 수 있다는 설문응답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본 결과, 금융감독기관,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그리고 회계관련학회 등 모든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 연수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기구인 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는 IFRS를 포함한 전문적인 교육컨텐츠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회계학 교육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학부의 IFRS이 설문사항으로 검토되었으며 모든 설

문그룹의 대다수가 IFRS교육은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이 아닌 학부에서 학습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회계학부 기간부터 회계학 기초학습과 동시에 IFRS학습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대학은 회계학 교육의 최초 제공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IFRS란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기초단계의 회계전공자가 이에 잘 적응하고 육성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종합적으로 교육기관별 선호도의 경우 대학교가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으로 나타났으며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회계학 학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회계학 교육에 있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교육의 요람이 대학이란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도 내재되어 있다.

첫째, 설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있어 회계학 교육제도 및 IFRS와 관련이 있는 회계학 전공학생, 회계/경영학 교수, 회계·세무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관련 실무자 등 연구대상자 4개 집단만으로 구분하였으며, 집단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설문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대상자가 설문에 대한 응답을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회적인 이익을 중시하여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하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증이 부족하였다. 둘째, 회계학 교육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상충된 인식수준의 차이를 이해집단 간의 합의 또는 조정을 이루어 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집단간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상충된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합의의 방안에서조차도 충분한 해답과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IFRS 도입에 대비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준비과정과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본 연구가 시도하지 못한 이해관계자의 세밀한 구분 및 분석검토는 향후 연구과제에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다만 본 연구는 IFRS에 대한 대비책이 교육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IFRS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지도 파악에 충실하게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맞는 종합적인 회계학 교육의 개선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호 · 정영기 · 김경태 · 이영한.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회계 및 공시관련 제 법률 간의 상충과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년 5월 30일
- 김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학의 협력방안 : IFRS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교육세미나,
2008년 1월.
- 문택곤 · 이종운. “IFAC 국제회계교육기준에 입각한 한국 회계학교육의 개선방안”, 한국회계학회 2006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06년.
- 송인만 · 이창우 · 이갑재 · 남혜정. 2007. “국제회계기준 도입모형 및 전략”, 회계와 감사 연구 제45호,
pp.187 - 208.
- 송인만 · 이창우 · 이갑재 · 정도진 · 남혜정. 2006. “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방안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 연구 제44호 특별기고논문, pp.1 - 26.
- 오준환 · 김호중 · 김성남. 2006. “국제회계기준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 수용수준, 대상 및 시기의 결
정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5권 제2호, pp.31 - 58.
- 임승연 · 최선화 · 송인만 · 고승의 · 이창우. 2008.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과 공정가
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 연구 제47호, pp.59 - 85.
- 주인기 · 권수영 · 황이석 · 심태섭. 2006. “국제교육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회계교육과 공인회계사 선발
및 교육제도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pp.135 - 163.
- 주인기 · 송인만 · 권수영 · 황이석 · 심태섭. 2008. “회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 회계교육 강화
방안”, 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pp.27 - 59.
- 최 관 · 정영기 · 박종일 · 윤승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관한 설문연구”, 2008년 하계 국제학술발표
대회 발표논문, 2008년 6월
- 홍정화, 「현대회계이론」 제1판, 신론사, 2001. p.20.
- 금융감독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및 감독방향」 심포지엄 자료, 2008년 8월
25일.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IFRS 개요 · 로드맵 · 해외도입사례, 2008년 5월.
- 성도회계법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대응방안」, 2007년 12월.
- 한국공인회계사회, 「FY2008 제1회 이사회」, 2008년 4월.
- 한국회계기준원, IFRS도입 로드맵 관련」 보도자료, 2007년 3월.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Education System in Adopt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Dae – Young Ra* · Sung-Bae Park** · Yun-Sang Lee***

〈Abstract〉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ensified the supervisory function in accounting and auditing policies. However, Korea has been classified into 'The country not using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Financial Reports of the Korean Companies has been suffering not to create its' credibility to the world.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Korea will restore the confidence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to the world. Until the recent 2 years,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 Boar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related institutions of accounting industry have been co-organizing 'the preparation group of adopting the IFRS', announcing the Exposure Drafts of the IFRS and publishing the analysis and the journal articles of the IFRS.

Where as the accounting transparency, credibility and CPA's reliability have been strengthening over the Korean society, the professional's awareness and the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haven't been reached to these expectation levels. Especially, the educational syllabus and contents of the IFRS are too insufficient to provide to the CPAs and the majoring students. The Accounting & Management majoring professors as the education supplier and the students, the CPAs and the workers in the accounting departments as the Education demander will result into the chaos together because of the practical experience shortage on this situation. Maybe the trial and error season to all related groups is necessary. Therefore, the Government, regulatory and related institutions urgently need to build up the education system & the CPA application examination policies.

This study suggests the solutions on the improvements of the accounting education system in adopting the IFRS as follows through theoretical researches and questionnaire survey about the accounting professional awareness among students, professors, CPAs & CTAs and workers.

* Master of Accounting, Kyung – won University

** Professor, Kyung – won University

*** Lecture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 – ang University

According to the survey, the IFRS education should be learned specifically with the basic accounting contents at bachelor course, not to be handled at master course or at Ph. D. course. The school of accountancy and the accounting professor will make efforts to find the solution, which is caused by the expectation gap between the learning level of student and the needed level in society.

On the survey, the students close to the graduation are always required to study more their accounting knowledge & background by our society without the learning period facto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co-operation which are composed of KICPA(represented by the Accounting firms), the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represented by the School of Accountancy all of the Univ. in Korea) to develop the IFRS education contents. It will be a basic step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school and the society.

The suggested solutions mentioned above on the improvements of accounting education policy are needed to be carried out independently on the basis of a consistent and concrete plan.

<Key words> IFRS, Accounting Education System, Professional Awareness, expectation gap, KICPA